

12년 후 광주 10명 중 4명 ‘나혼자 산다’

한은 보고서 ... 결혼 기피에 지난해 1인 가구 비중 전국 3번째 60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91만원...취약계층 돌봄 대책 시급

오는 2030년이면 광주지역 10개 가구 중 4개 가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침체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

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배준형 기획금융팀 조사역은 ‘광주지역 1인 가구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 14.7%이던 광주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16년 29.0%로 빠르게 늘어난 데 이어 오는 2030년에는 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에서도 광주지역 1인 가구 비중은 특·광역시 중 서울(30.9%), 대전(30.9%) 다음으로 높다.

배 조사역은 여기에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를 활용, 2030년이면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6.2%인 22만2천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10명 중 4명이 혼자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라는 예기로, 연령대별 1인 가구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배 조사역은 광주지역 60대 이상 1인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91만원으로 같은 연령대를 가구주로 둔 다인가구 평균소득(142만원)의 65%에 불과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20·30대 및 40·50대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이 다인가구 평균소득의 각

각 91%, 98%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는 게 배 조사역 설명이다.

또 60대 이상 1인 가구 중 취업자 비중이 15.3%로 다인가구(39.0%)에 비해 낮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45.5%로 다인가구(20.2%)에 비해 높다는 점도 ‘취약한 직업 안전성’을 드러내는 수치라고 지적했

다.

여기에 60대 이상 1인가구의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중 의료비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돌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0·50대 1인가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실정이다. 40대 이상 1인 가구의 임시·일용직 비중(36.2%)이 다인 가구(11.0%)에 비해 현저히 높고 40·50대 1인가구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향후

고령층에 편입될 경우 노년층 빈곤 문제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배 조사역의 분석이다.

배준형 조사역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인한 구조·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40·50대 1인 가구의 건강상태 및 노후대비 수준을 파악, 복지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수시전략설명회 뜨거운 관심

‘2019학년도 수시지원전략설명회’를 진행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4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을 초청해 수험생 및 학부모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제공〉

광주·전남 1만여명 금융자산 ‘10억 이상’

세계 경기·주식·부동산 호황 효과 ... 전국에 27만8000명

광주, 북구·서구 각각 1600명 최다 ... 자산 절반 부동산 투자

KB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광주·전남에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간 2500명 증가하는 등 매년 1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27만8000명이나 됐다.

6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의 수는 광주 5500명, 전남 4800명 등 27만8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기준인 24만2000명보다 15.2% 증가한 것으로 1년 만에 3만명 이상 늘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주식시장 호황,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등이 맞물린 효과라는 게 연구소 측 분석이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인당 평균 23억2000만원. 총 규모는 646조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만1700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5만9400명·21.3%), 부산(1만8500명·6.6%)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4만3000명이 몰려 서울 전체 부자 수의 35.6%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북구와 서구 부자수가 각각 1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부자수는 100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에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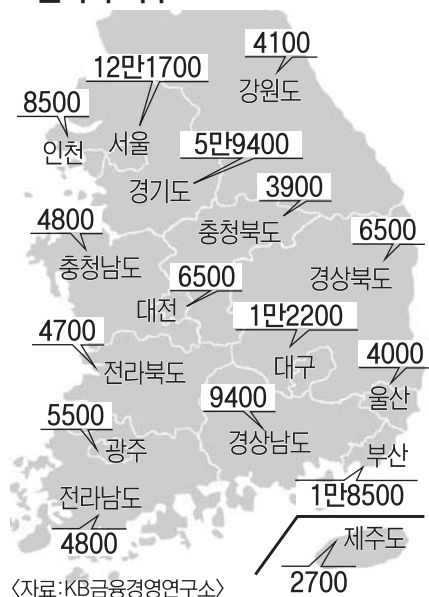
인 부자 수는 4200명(2015년 말)→4800명(2016년)→5500명(2017년)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 2015년 말 3600명에서 2016년 4100명, 2017년 4800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한국 부자는 자산의 절반가량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은퇴 이후에도 주로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한국 부자는 올해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53.3%로 가장 높았고 금융자산이 42.3%, 예술품 등 기타 자산이 4.4%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부동산 자산 비중이 최근 2년 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국 부자는 은퇴 후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월평균 660만원의 필요하다고 답했고 향후 유망한 국내 부동산

■전국 부자수 <단위:명>



〈자료: KB금융경영연구소〉

투자자로 상가(34.8%), 재건축아파트(34.5%) 등을 꼽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86.50 (-1.18)	↓ 금리 (국고채 3년)	2.10 (-0.01)
↓ 코스닥	781.41 (-7.40)	↓ 환율 (USD)	1124.00 (-3.60)

대학생에 월 4만5천원 임대주택 공급

LH, 광주·전남 첫...10일까지 입주자 417명 모집

주변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만 내고 머무를 수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생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0일까지 광주 4개 지구에 조성한 15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단지(139가구)에 입주할 대학생 예비입주자 417명을 모집한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고령자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LH가 도심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재건축)을 거쳐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는 광주·전남에서는 처음 공급되는 것으로, 동구 20가구(전용면적 15

~30㎡), 서구 25가구(㎡ 16~23㎡), 남구 18가구(㎡ 19~30㎡), 북구 76가구(㎡ 15~25㎡) 등이다.

100만원의 임대 보증금에 임대료가 월 4만5000원~9만3000원 수준으로 최대 6년간 머무를 수 있어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타 시·군 출신 학생으로,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총자산 1억7800만원(자동차 2545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0일까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제품공정개선 참여 中企에 최대 5천만원

중소벤처부 광주·전남청 23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오는 23일까지 ‘2018년도 하반기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제품·공정개선사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1년간 생산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생산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에 정부출연금 75%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우대하고, 과제 평가를 대폭 간소화했다.

김진형 청장은 “꾸준한 기술개발만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신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청 제품성능 기술과(062-360-9153)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

농협전남본부 상 복 터졌다

창립 57주년...관내 사무소 산업포장 등 다수 수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6일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농협 창립 57주년 맞이 시상식에서 관내 사무소가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용석 삼향농협 조합장과 김선웅 강진군지부장은 농업과 농촌, 농협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산업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강진 도암농협(조합장 문경식), 구례 축산농협(조합장 이동운), 목포유통센터(사장 김동기), 영광중돈계량사업소

(소장 오동원) 등은 총화상을 수상했다. 농협 총화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 및 시군지부, 지점 등을 대상으로 친철봉사, 인화단결, 사회공헌, 업무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1회 최우수 사무소에 시상하는 농협 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또 윤성훈 순천농협 과장대리는 전국의 농협 직원들 중 최우수 직원으로 선발돼 우수직원상을 수상하고 포상으로 특별승진을 받았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임대 741㎡,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7억 ◆ (조정가)

인 하 건 설 (주)
010-3605-0214
062) 655-484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